

思 索

權 武 一

영겨 불은 泡沫속으로 奔忙히 끓어 오르는 소용들이, 激情 속에 무겁게 자리한 하
테스 속으로 부글거리는 呻吟과 絶叫 私生兒에게 불여 줄 이름과 姓을 외듯, 가슴을
때리는 煩惱.

온갖 方向으로부터 비가 쏟아졌으면………

느끼며 울며, 참적의 아픔을, 기리고 그 周邊을 徘徊한다. 음침한 蠕動을 짓누르려
던, 말톱이라도 키워 보려던, 그래서 간혹 壮談을 해 보던, 가여운 悲鳴이 混迷한, 거
리로, 다시 忘却 속으로 끌려가 버린다.

駭怪한 꿈의 餘韻을 질질 끌고 다니며…… 누구쯤 만나 웃음을 하탈히 뿐릴 때면 쉽
도록 역겨운, 낯설은 異邦으로 떨어져 가린(可咎)스렛 반발을 움키고 만다.

太陽이 요란스레 旋廻하던 그 날은 血闘의 隊列에 끼어 앙다짐으로 부수고 치고 아
우성, 戰場의 피를 마셨으나, 黑雲이 하늘에 차고 다서 가슴으로 肉迫해 올 때 손짓도
발짓도 꺼져버린다.

창가에 빗방울 덮고 逆流하는 奧奮 속에 용트림하는 歎笑. 그렇게 頭惱는 맴돌고 상
처의 저린 부분이 끓어 터져 번지는 아픈 웃음. 비로서 混流된 血痕을 심판한다.